

여수시, 특별교부세 30억 확보...섬박람회 준비 박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편의시설·폭염 저감시설에 활용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격 확보하며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준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부행사장 관람 편의시설 조성 ▲주행사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행사장 시설 보강에 활용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정현구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과 현장 방문 등을 계기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진 것

로 분석된다. 중앙부처에서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그늘막과 휴게공간 조성, 쿨링포그(140개소) 설치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사업에 착수해 박람회 개막 전인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33억 원을 추가 확보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환경 개선 등 18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섬박람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히 협력해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특별

교부세 확보를 계기로 섬박람회 준비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행사장 핵심 시설인 주·부행사장의 관람 동선 개선과 폭염 대응 시설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방문객 안전과 편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여름철 고온 환경을 고려해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링포그와 그늘막, 휴게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시간 야외 관람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걸맞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인 도서지역 기반 시설 개선과 해양 환경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섬박람회와 연계한 지역 전반의 관광·환경 인프라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격 확보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추진

순천시는 한우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등록 지원사업, 인공수정 우량 정액비 지원사업,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체계적인 한우 개량과 혈통관리를 위해 '한우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우 등록은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며 계획교배와 우량 개체 선발, 도태 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등록은 기초등록·혈통등록·고등등록 등 3단계로 나뉘며, 등록비는 각각 두당 6천원, 8천원, 1만원이다.

시는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 우량 정액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가가 인공수정 과정에서 구입하는 보충씨수소(KPN) 우량 정액비용을 지원해 우수 송아지 생산과 농가 맞춤형 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독서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광양시립도서관이 시민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간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작가 초청 특강 2회와 독서모임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작가 초청 특강은 독서동아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회차 특강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어른의 국어력」 등의 저자인 김범준 작가가 맡아 말의 중요성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 방법, 존중하는 대화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은 5월 27일 오후 7시 중앙도서관 3층 교육실

에서 열리며, 신청은 5월 14일부터 가능하다.

2회차 특강은 독서모임 기획자이자 독서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자인 김지영 작가가 맡아 지속 가능한 모임 운영 방법과 참여자 간 관계 형성, 독서모임 성장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6월 13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3층 인문학실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도서관과 도서관지원팀(☎061-797-3870)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립도서관은 독서동아리 모임 현장에 독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독서모임 컨설팅(코칭)'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전남 곡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3층)에서 실과소 및 읍·면 물품·구매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창환 원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구매 절차 및 구매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전남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현황과 다양

한 생산품을 소개하며 실제 구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선구매 대상 품목,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매 실적 관리 방법 등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구매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일규 기자

자전거타고 구례 한바퀴, 빙구레스테이션 자전거 대여 시작!

전남 구례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빙구레스테이션'이 로컬마켓과 관광안내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빙구레스테이션 내에서 지역 농특산품과 관광굿즈를 판매하는 '빙구레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명소 안내와 함께 관광형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 관광형 자전거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섬진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 대가족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시간당 500원의 이용 요금으로 매주 토요일

요일과 공휴일 10시부터 17시까지 빙구레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제작한 'Made in Gurye'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빙구레마켓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자전거 여행과 로컬마켓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전거 대여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해 빙구레스테이션이 여행객을 위한 필수 방문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빙구레스테이션의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NA 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